

“송정역·터미널·공항에 선별진료소 설치해야”

코로나 심각 수도권 방문자들
폭염 탓에 진단검사 외면
광주 주요 관문 내에 설치
검사편의·홍보 두 토끼 잡아야

수도권발 코로나19가 휴가시즌 등을 맞아 광주·전남까지 덮칠 조짐을 보이면서, 하루 평균 5만여 명의 이용객이 오가는 광주광천버스터미널과 송정역·광주공항 등 주요 관문을 선제 방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극히 일부 감염자만 선별할 수 있는 기초 장비인 발열검지기만 설치된 상태로, 냉방시설을 갖춘 터미널 등 주요 관문에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등을 홍보하는 기능까지 겸비해야 한다는 게 방역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인력난 등으로 선별진료소 추가 배치는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등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지만, 연일 30도가 넘는 폭염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후 선별진료소 방문을 꺼리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수도권 발 ‘지역사회 대유행’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신규 확진자 13명(누적 3086명)이 발생했다. 이 중 4명은 동구 아동복지시설 관련, 6명은 수도권 확진자 관련, 3명은 지역감염 사례다. 지난 14일에도 2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상당수가 수도권 관련 감염 사례였다.

특히 수도권발 감염자 중 일부가 송정역과 버스터미널 등으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역 최전선인 주요 관문에 방역 시스템을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도 일부 확진자가 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유입됐고, 2015년 전국을 뒤흔든 ‘메르스’ 때도 확진자를 비롯한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등이 광천터미널을 통해 광주로 들어온 뒤 대학교와 식당 등을 누비고 다닌 게 드러나면서 지역사회가 대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재 광천터미널(하루평균 이용객 2만715명), 송정역(2만5030명), 광주공항(5550명) 등 주요 관문의 이용객만 하루 5만여 명으로,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방역전문가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최진수 광주시 코로나19 민간전문가 지원단장(전남대의대 명예교수)은 “광주 주요 관문 내에 선별진료소 겸 홍보 기능 갖춘 부스를 전진 배치해 진단검사 및 홍보 등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시설은 냉방도 유지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좋고, 타 선별진료소의 진단검사자 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도 이 같은 방역전문가들의 조언에 공감

하고 선별진료소 전진 배치 등을 고민하고 있지만, 문제는 부족한 근무인력이다. 광주시는 현재 5개 보건소와 시청 야외음악당 임시 진료소 등 6개 선별진료소에 53명을 배치해 직접 운영중이며, 조선대학교 병원 등 민간병원 7곳에서도 위탁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대병원만 이달 말까지 운영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시는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어진 탓에 선별진료소 배치 인원의 근무 피로도도 가중되고, 추가 인원 확충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관문에 임시 선별진료소 설치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민심에서 부는 ‘이낙연 바람’ 피부로 느껴”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
광주일보 단독 인터뷰
민주당 경선 승리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사진) 예비후보는 15일 “호남을 중심으로 전국 민심의 근저에서 ‘이낙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라며 경선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인터뷰 3면>

이 후보는 이날 광주일보사에서 진행된 단독 인터뷰에서 “예비 경선 과정인 국민면접과 블라인드 면접에서 각각 1위를 하는 등 안정감과 신뢰감에서 타 후보에 비해 우위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급상승, ‘2강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며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당 대표 등을 지낸 풍부한 경험과 경륜, 정책의 완성도 등에서 야권 후보를 압도할 수 있는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의 터닝포인트인 다음 달 15일 1차 슈퍼위크(1차 선거인단 투표 결



과 발표)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신인이 정국과 같은 정치 판을 제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민심과 시대적 열망보다는 각종 사비에 열중한

사람이라면 조만간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같은 호남 출신인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다는 점에서 공동의 책임감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방법과 시기는 차차 나올 것이며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지율 1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순발력이 강점이지만 그것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벼움을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

자와 투기 혐의자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부동산정의 3원칙’을 제시한다”며 “토지에서 비롯되는 자산소득 격차를 줄이는 ‘토지공개념 3법’의 법제화와 ‘주택부’ 신설을 통해 집값 안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청년 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청년은 이 시대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며 “과거에는 가난하더라도 꿈을 꿀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 환경이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취업과 주택, 육아 문제 등 청년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이 후보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저의 캐치 프레이즈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이며 저의 브랜드인 ‘신복지 구상’을 통해 현실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호남의 미래 비전과 관련, 이 후보는 ‘호남권 경제-에너지 공동체’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지지부진한 광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전국 군 공항의 효율적 통폐합 카드를 거론, 눈길을 끌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에 32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린 15일.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 시민들이 폭염에 뜨겁게 달궀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낮엔 찜통더위 밤엔 열대야

오늘 최고 35도 ... 18~19일 비 내린 뒤 최강 폭염 온다

광주·전남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16일과 17일에도 이어져 9일 동안 맹위를 떨칠 것으로 보인다.

이여 18일~19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약간 누그러지고, 장마의 영향권에서도 멀어져 차차 장마철이 끝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날 하순에는 장마가 종료된 이후, 한단계 강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의 16일과 17일 낮 기온은 32도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고 곳에 따라 35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겠다. 밤 시간대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16·17일 오후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다. 해상에서는 16일까지 앞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17일까지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 최고기온이 32~33도에 이르는 폭염에, 습한 기온이 겹치면서 체감온도가 35도를 웃도는 날씨가 열흘 가까이 지속되면서 노약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주말과 일요일에는 소나기나 비가 내려 더위가 약간은 내려가겠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만만치 않겠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동구·북구 코로나 선별진료소 가보니 ▶6면

복스 - ‘소년, 어른이 되다’ ▶14·15면

전남 드래곤즈, 홈에서 1위 탈환 노린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7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1]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쫘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쫘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렉스스프레이 및 전국 백화점, 아르레 카운셀링룸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official • 플렉스스프레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